



### '불사조 오리' 또한번의 역전극

얼마전 사냥꾼의 총에 맞고 냉장고에 갇혀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오리 이야기가 화제로 떠올랐다. 이 오리가 워낙 큰 상처를 입어 치료 도중 한때 숨이 멎었는데 심폐소생술 덕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끈질긴 생명력이 다시 한 번 화제가 되고 있다. 불사조 오리 '퍼키'가 또 한번의 역전 드라마를 연출한 것이다. 사냥꾼이 쏜 총을 맞고 냉장고에 이틀 동안이나 갇혀있다 극적으로 살아난 오리 '퍼키'! 그런데 이번에는 상처 치료 도중 갑자기 숨이 멎으면서 또 한번의 위기가 찾아왔다. 이제는 정말 마지막처럼 보였던 '퍼키'! 하지만 놀랍게도 심폐소생술을 받고 또다시 새생명을 얻게 되었다. 야생동물 보호기는 우선 산소를 공급한 후 희미하게 심장 뛰는 소리를 듣고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며, 세 번 씩이나 생사를 넘나들었던 오리는 현재 다리의 상처 빠고는 매우 건강한 상태라고 전했다.

### 닭의 몸에 오리의 다리???

뾰족한 주둥이에 빨강계 솟은 닭뿔. 누가봐도 수탉이 분명하지만 몸통에 달려있는 것은 생똥맛은 오리발! 뾰족뾰족 날렵한 닭발이 아닌 물갈퀴가 달린 몽푹한 오리발이다. 이 닭은 심지어 수탉의 머리를 하고 암탉의 울음소리를 내는 등 사람들을 끊임없이 헛갈리게 하고 있다. 닭을 너무 오리



## 끈질긴 오리의 생명력!!

가까이에 키우면서 닭과 오리가 사랑에 빠져 혼종이 태어난 것이 아닐까 추정한다는 닭 주인 레니포씨는 6개월 된 이 닭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애완동물로 계속 키울 예정이라고 한다.

### 건강하게 뛰노는 '다리 네 개 오리', 시선 집중

영국의 한 농장에서 다리가 네 개 달린 오리가 태어나 화제가 되고 있다고 17일 디스이즈 햄프셔 등 영



국 언론이 보도했다. 다리가 두 쌍 달린 오리는 최근 영국 햄프셔주 뉴 포레스트에 위치한 한 오리 농장에서 태어났는데, 정상적인 다리 아래 쪽에 두개의 다리가 추가로 붙어 있는 모습. 노란색에 아직 솜털이 채 가지지 않은 '다리 두쌍 오리'는 다른 형제 자매 오리와 함께 농장을 뛰어 다니고 있는데,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 농장 주인의 설명. 농장 주인인 니키 제나웨이는 "다리가 네 개 달린 오리를 얻은 것은 처음"이라며 놀라움을 표시했고, 동물 전문가들 또한 이 같은 오리의 모습에 깜작 놀라고 있다고 언론은 설명했다. 다리 네 개를 이용,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오리는 '스텀피'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.